## 떠내려오는 차 막고 물에 빠진 사람 구하고

# 최악 폭우 속 빛난 '시민 영웅들'

### 80대 이웃 3명 구한 문종준씨
### 물에 빠진 노인 구한 공업사사장
### 떠내려오는 차 막아낸 직원들
### 온라인에선 '생명의 은인 찾기'

광주·전남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는 도중에도 현장에 뛰어들어 시민들의 목숨을 구한 '시민 영웅들'이 있었다.

문종준(49·사진)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에서 온 마을에 물이 차오르는 도중에 이웃집 80대 할머니 3명을 구조했다.

문씨는 집 안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대피하려던 찰나, 이웃집의 할머니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란 생각에 이웃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먼저 옆 집의 대문을 두드려 잠을 자고 있던 할머니를 깨웠는데, 그 1분여 사이에 발목까지 찼던 물이 배꼽까지 차오르는 등 물이 생각보다 빠르게 불어나고 있었다.

마당에는 할머니가 수집 중이던 재활용품 깡통 더미가 물에 둥둥 떠서 어지럽게 들어차 있어 한 발짝 내딛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문씨는 인근 빈 집의 대문을 부숴 깡통을 빈 집으로 몰아넣어 통로를 확보한 뒤, 가스 배관을 잡고 급류를 헤쳐 가며 할머니를 집 안에서 빠져나오게 도왔다.

이후 다른 할머니가 집 안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 철제 대문을 강제로 열어제껴 40~50여㎝ 공간을 만들었다. 문씨는 그 사이를 비집고 집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를 업고 나와 대피시켰다.

이미 물이 목까지 차오르는 상황이었으나, 또 다른 인근 이웃집 할머니의 아들이 물살을 못 견뎌 하며 "거동을 못 하시는 어머니가 집 안에 갇혀 있다"고 외치는 것을 발견했다. 문씨는 주저없이 급류를 뚫고 해당 집 안에 들어가 할머니와 아들까지 들쳐 메고 물길을 헤쳐 나왔다. 이 할머니는 물에 잠긴 채 숨만 겨우 쉬고 있는 상황이었다.

문씨는 "보성에 계신 80대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나기도 하고,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몸이 먼저 움직였다"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같은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나처럼 행동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시 동구 소태동에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최승일(54)씨가 호우 현장에서 물에 빠진 어르신을 구조한 영상도 인터넷 등지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상에는 지난 17일 오후 5시께 최씨가 폭우로 물이 차오른 도로에서 갈라진 아스콘 틈에 끼어 옴짝달싹 못하고 있던 할아버지를 구조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할아버지가 빗물에 휩쓸려 떠내려오다 아스콘 틈에 끼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물살을 헤치고 할아버지에게 접근해 구조를 시도했지만, 할아버지의 두 다리가 아스콘 더미에 걸려 있어 빠지지 않는 상태였다. 더구나 물이 차오르면서 얼굴까지 물에 잠겨 숨을 쉬기조차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

최씨는 우선 숨이라도 쉴 공간을 만들기 위해 나무 판자를 세워 물살을 가로막았으나, 이번엔 승용차 한 대가 물살을 타고 할아버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지난 17일 광주시 동구 소태동에서 최승일씨가 물에 빠진 노인을 구조하고 있다.

직원들이 달려들어 차량을 멈춰 세우고, 최씨는 공업사에서 쓰던 도구를 가져와 할아버지의 다리를 빼내 구조했다.

최씨 등은 할아버지를 공업사로 데려가 안정을 찾게 한 뒤 119 구급대에 넘겼다. 할아버지는 의식, 호흡 모두 정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폭우 현장에서 자신을 구해 준 생명의 은인을 찾는다는 인터넷 게시글도 올라왔다.

지난 18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생명의 은인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작성자의 아버지가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신안삼거리에서 차량에 갇혔다가 흰 옷을 입은 젊은 남성 두 명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게시글 작성자는 "급격히 불어난 물 때문에 차가 침수된 상황에서 수압 때문에 차 문이 열리지 않아 꼼짝없이 갇혀 있었는데, 젊은 남성 두 명이 차 문을 열어 줘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며 "혹시라도 이 글을 보게 된다면 꼭 연락을 달라"고 썼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침수피해 복구 작업** 20일 광주시 북구 신안교 인근 침수 피해 주택가에서 육군 31보병사단 장병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제주항공 참사' 엔진 결함 없었다" 사조위, 결과 브리핑 중 유족 반발

### "섣부른 발표에 혼란만 줄 것"

국토교통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엔진 정밀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브리핑을 열었다가 유가족 반발로 파행됐다.

사조위는 지난 1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합동 엔진 정밀 조사 결과'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사조위는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4일까지 미국과 프랑스 사고조사당국 등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엔진 제작사인 프랑스 샤프란사에서 실시한 엔진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유가족 등에 따르면 이날 사조위는 사고기의 엔진 자체 결함은 없었다는 등 취지로 브리핑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가족들은 "사고 원인과 관련된 표현을 마치 최종 결론에 도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됐다"며 "조사 결과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사고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없이 단순히 새 떼와 조종사의 잘못만 부각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엔진 조사 결과는 다양한 원인의 가능성 중 하나를 다루는 중간 조사 결과로 이해돼야 하는데, 섣불리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발표하면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것이 유가족들 주장이다.

유가족들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 사고기 블랙박스 관제 기록에 대해서도 충돌 전 4분 7초간 대화의 텍스트 편집본만 제공되고 전후 상황은 비공개한 점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사조위는 유가족 의사에 따라 유가족 브리핑 이후 예정됐던 공개 브리핑 일정을 취소했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조사 결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전혀 납득할 수 없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근거가 되는 자료를 공개해달라 했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들었다"며 "해당 내용에 대한 보다 신중한 재검토를 거친 뒤 브리핑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추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공개 브리핑 일정을 다시 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무안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HL8088편이 동체 착륙 후 활주로 끝 '로컬라이저'와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파업 예고

### 노동쟁의 조정 신청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업을 예고했다.

20일 의료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산하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노조는 임금 인상 등 핵심 요구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 오전 6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두 병원 노조는 임금 6.9% 인상, 인력 충원 등을 공통으로 제시했다.

사측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로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임금 동결 등을 요구했다.

교섭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두 병원 노조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동시에 신청했다.

지노위는 오는 23일까지 조정 중지 여부를 일괄 결정할 예정이다.

두 병원 노조는 지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오는 23일 오후 6시 총파업 전야제를 열고,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동시 파업에 들어간다.

쟁의조정 신청 직후 투표에서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노조는 각각 92.9%, 75.2%의 파업 찬성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 폐식용유·커피찌꺼기 재활용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폐식용유와 커피찌꺼기, 왕겨·쌀겨를 순원자원으로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정해진 용도와 방법 등을 준수하는 경우 폐기물로서 규제받지 않는다.

폐식용유는 지속가능한항공유(SAF) 등 석유 대체 연료 원료물질로, 커피찌꺼기는 퇴비·건축자재·생활용품 등으로, 왕겨·쌀겨는 사료·퇴비나 축사 바닥에 까는 용도로 재활용이 이뤄지고 있거나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 문 닫은 병원 진료기록 열람 쉬워진다

### 오늘부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

문 닫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해 환자들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가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앞으로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기록을 직접 이관할 수 있게 된다. 환자는 필요할 때 진료기록 발급포털에서 필요한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가능한 자료는 진단서 사본, 진료내역,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 청구나 자격증명에 필요한 주요 진료기록 17종이다. /연합뉴스